

투데이 칼럼

먼저된 자 나중되고

최근 미국에서는 하와이를 비롯하여 뉴욕, LA, 라스베가스 등 비교적 관광지가 밀집한 지역을 관광하러 입국하는 일본여성에 대해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하고 있으며, 영어를 못하거나 옷집이 많고 소지한 현금이 적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제는 가난한 일본여성들이 배춧을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마사추세츠 등 여러지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의 매출을 적발하였는데 일본여성들이 다수 적발되어 추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진 일본, 과거 우리나라 임금률 크게 상회하던 것과 달리 2022년 한국 대기업 평균 임금은 약 588만 원으로, 20년 새 157% 상승했다. 이 기간 일본 대기업 임금은 되레 6% 감소한 443만 원이다.

중소기업의 상승률도 한국이 높다. 현재 한국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339만 원으로, 20년간 111% 증가했다. 반면 일본 중소기업은 7% 오르는 데 그쳐 326만 원이다. 이런 저임금 구조는 결국 하이



홍민기 수필가

테크 인력의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였고, 아나로그의 늪에서 멈추어 있는 문명을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해도 이를 추진할 엔지니어 자체가 없다.

그러한 현상은 해외기업에 디지털문명을 용역하여 어떤 분야의 시설개발을 했어도 계속 재계약하지 않으면 기술 노하우를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새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일본은 지금 엔저 상황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은 수출에 청신호 수입에 적신호가기 때문에 수출이 많은 나라의 경제는 호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은 엔저 자체가 불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2022년 통계상 25만여개의 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의 8%)이 있다.

중소기업이란 설립,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아 세운 기업으로서 순익의 대부분이 이자상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으로서, 만일 엔저를 막기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대부분 도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재취업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임금상승은 기대 자체가 어렵다.

디지털로 도약하지 못하는 문화와 산업은 결국 계속 뒤처지게 되었고, 일본 대표적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도 세계 자동차 기업이 일찌기 전기차, 수소차(한국 현대) 연구, 개발로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내연기관 차단 고집하다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이 환경 우선을 내걸어 유럽 여러나라가 몇년 안에 내연기관 차 운행, 등록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르노즈쿠리(장인정신)만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 게을리하다가 세계 경제 2위였던 일본이 이젠 중국, 독일, 인도에게까지 밀려 5위에 있는데 이 순위마저도 떨어질 상황이다.

스포츠 세계의 '월드 레코드(세계 기록)'는 계속 깨어지듯이 경제력, 군사력, 국가경쟁력, 문명지수, 기타 국제 지수도 잠시만 자만하며 게을리하면 나라에 빠져든다.

성경구절 중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가 있다.

제국의 지위로 아시아를 호령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던 일본, 아직도 반성, 사과없이 태평양전쟁의 상징 '육일기'를 자랑스럽게 거는 오만함이 구겨지는 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사설

하루 42명 자살

지난 1월 한 달간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42명이 자살했다. 국내 어느 지자체에서 직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직원이 지난 4월 25일 승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동료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년 사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 악성 민원과 과로에 시달린 교사·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 취약한 사회안전망, 악화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 사망자 급증은 늘어난 가계 부채에 따른 가정 경제 악화가 자살 증가의 한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작성 이래 한국은 자살률 1위를 기록해왔다. 사회안전망

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허물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살아갈 용기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 사회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권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자살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자살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언론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복원이 절실하다.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같은 아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동상의 등 뒤에는 (여보게 친구야, 한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타이완의 한국어 학습 열풍

요즘 타이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다. 대학의 한국어학과 입학 경쟁률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타이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과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모여 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언어 교환' 모임도 있다.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타이완 청년들이 벌써 10년째 매주 만남을 이어가기도 한다. 한류 팬 규모가 160만 명이 넘다 보니 한국어 학습 열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타이완 내 한국어능력시험(TOPIC) 응시자는 지난 2011년 3천여 명에서 12년 만인 지난해엔 3배가 늘어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은 모두 세 곳이다. 이 가운데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중곡문화대학교 한국어문화과도 요즘 높아진 한국어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5년 전 60명이던 입학 정원이 올해 110명으로 늘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숫자가 550명을 넘어선 것이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빠져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졸업 후 통번역이나 국제 무역,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한국을 단순히 즐기는 문화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과 경제, 정치, 외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타이완에서는 한국 문화가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제 단순히 한국어 학습을 넘어 한국-타이완 두 나라 사이 가교 역할을 해낼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대도시 위주로 구축된 한국어 교육 기반을 전국 각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2006년 UN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이는 노인 학대 문제는 가정이나 시설 내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학대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 보

노인학대, 관심만큼 예방할 수 있다

고서를 보면 2022년 학대유형 건수는 총 10,542건으로 정서적 학대 4,561건(43.3%), 신체적 학대 4,431건(42.0%), 방임 689건(6.5%), 경제적 학대 397건(3.8%), 성적 학대 259건(2.5%), 자기 방임 169건(1.6%), 유기 36건(0.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5,867건(86.2%)을 차지할 만큼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APO)이 직접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 전문가관 관계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노인 학대 징후로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있거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름, 욕설 등의 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노인이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를 보이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의 두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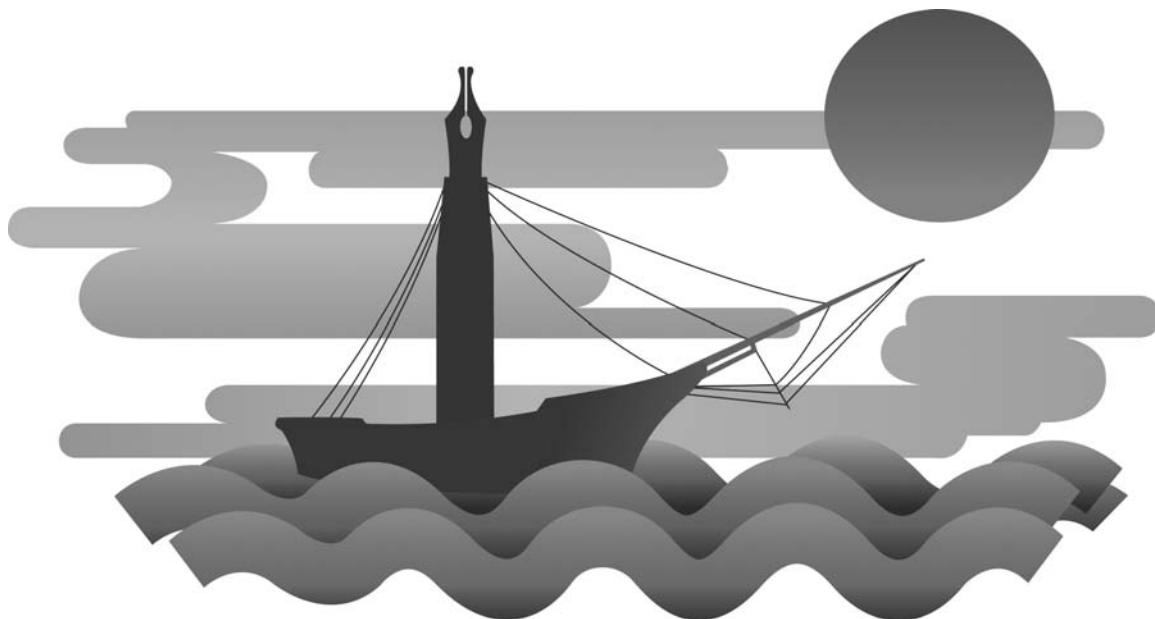
노인 학대 신고는 경찰서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 앱스토어에서 나비세김(노인지킴이)을 다운 받은 후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부터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근 고창경찰서생활안전전담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